

제 목	국 문	간질환력과 원발성 간암		
	영 문	Liver Disease History and Primary Liver Cancer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동현 <sup>1)</sup> , 안윤옥 <sup>1)</sup> , 박병주 <sup>1)</sup> , 유근영 <sup>1)</sup> , 이상일, 안형식, 이무송, 이효석 <sup>2)</sup> , 김정룡 <sup>2)</sup>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내과학교실		
	영 문	DH Kim, YO Ahn, BJ Park, KY Yoo, SI Lee, HS Ahn, MS Lee, HS Lee, CY Kim <i>Dept. of Preventive Medicine and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i>		
분 야	역 학	발 표 자	김 동 현 (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0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 1. 연구 목적

원발성 간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Africa 와 중국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발생율이 높아 인구 10 만명당 남자에서는 연간 65 - 35, 여자에서는 25 - 10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중등도의 발생 수준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에서는 남자 30-10, 여자 8-4 명 정도이고, 미주 및 유럽지역은 남자 5 이하, 여자 1.5 이하의 낮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시 지역암등록보고서에 따르면 남자 33.1 명, 여자 9.8 명으로 중등도의 발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암 중에서의 상대빈도로 볼 경우, 남자에서는 위암에 이어 두번째로 호발하고(16.1%), 여성에서는 5번째(0.6%)의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

원발성 간암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B 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양성을 들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간암환자의 약 67%가 이로 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B형 이외의 간염질환, 혹은 독성물질등도 간세포 손상을 통하여 간암발병에 관여할 것이다. 최근의 한 보고에 따르면, 만성 활동성 간염환자의 45% 만이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이었고, 17% 에서 C형 간염항체가 있었고, 이상의 두 표지자가 모두 음성인, 따라서 혈청학적으로 Non-B, Non-C형이 28.4%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원발성 간암의 위험요인으로 C형 간염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전향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상의 혈청학적 검사는 환자가 원발성 간암으로 진단받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 간암발생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인과론적 추론을 하기에는 그 시간적 선-후 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5년 이전에 간질환을 앓은 병력과 원발성 간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 봄으로서 간세포 손상의 경험이 원발성 간암 발생에 대해 갖는 인과적 관련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고자 하였다.

## 2. 연구 방법

1987년 4월 1일 부터 1988년 6월 30일 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병리조직학적으로 또는 임상병리학적으로 확진된 원발성 간암 환자군과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병원의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환자군과 성과 연령이 같도록 개별 짝짓기 방법으로 임의 추출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하여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 3. 연구 결과

5년 이전에 간질환을 앓은 병력과 원발성 간암의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Odds Ratio 7.0, 95% CI 2.1 - 23.5 ), 간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도 원발성 간암의 발생위험도는 9.0배(95% CI 2.1 - 38.8 ) 상승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급성 간질환으로 과거 병력을 국한하였을 경우, 원발성 간암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3.0 (95% CI 0.6 - 14.9) 이었고, 급성 간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도 그 위험도는 3.0(95% CI 0.31 - 28.8 ) 이었다.

한편 C 항체 양성자의 경우 음성자에 비해 발생위험이 3배(95% CI 1.28 - 7.06)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 4. 고찰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하여 B 형간염이 원발성 간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는 대부분 환자가 원발성 간암으로 진단되는 시점에 측정된 혈청학적 상태에 근거함으로 해서, 그 시간적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본연구에서는 5년전 간질환의 과거력을 위험요인으로 살펴봄으로서 충분한 잠복기를 고려한 상황에서 원발성 간암의 발생위험요인으로서 간세포에 손상을 주는 여러 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한편 간질환의 가족력은 개인의 간질환력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원발성 간암의 발생위험을 상승시키는 소견으로부터, 가족에 따라서는 원발성 간암발생유발인자에 대해 유전적 감수성에 차이가 있지 않나 추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